지역 AI기업 실리콘밸리 진출 돕는다

광주시, 김대중센터서 온라인 투자유치 설명회

구글 등 투자자 심사…현지 파트너사 기술협력

광주시는 지난달 31일 오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실리콘밸리 온라인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실리콘밸리 현지 파트너사와의 기술협력을 통한 지역 내 우수 인공지능 기업들의 실리콘밸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실리콘밸리 현지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구글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이자 실리콘밸리 대표 스타트업 투자기관인 플러그앤 플레이의 멘토를 맡고 있는 기드온 마크(Gideon Marks), 샌드 힐 엔젤의 짐 코너 등 5명의 우수한 투자자가 심사역으로 참여했다.

행사에 참가한 14개 인공지능 기업은 최근 3개월간 해외네트워킹 전략과 투자유치(IR) 역량강화교육, 투자유치(IR) 피치덱, 글로벌 투자자(VC, Venture Capital)와 직접 연계한 멘토링 등의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해 실리콘밸리 진출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투자유치 실현을 위해 집중적으로 준비해 왔다.

참가기업들은 각 기업별로 투자유치 피칭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최종 선발된 실리콘밸리 진출기업 5곳은 오는 10월 실리콘밸리 방문 및 현지 투자자·협력사 대상 투자유치(IR)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후에도 기업들이 실질적인 투자유치 및 협력사와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기업별 진출목적에 맞는 투자자 매칭 및 멘토링 등의 후속지원을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광주-실리콘밸리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내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광주 실리콘밸리 해외투자유치 구축사업에 참가했던 1기 기업 8곳 중 ㈜인디제이, ㈜넷온, ㈜에스오에스랩 등은 실리콘밸리 프로그램 참가 후 국내 투자자(VC)를 대상으로 진행한 투자유지(IR)를 통해 엔젤투자 유치, TIPS 프로그램 선정, 90억원 규모의 투자자금 유치에 성공하는 등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인디제이는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지난 2월 앱을 출시한 이후 출시 6개월만에 애플 앱스토어 음악앱 부문 1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넷온은 실리콘밸리 해외투자유치 구축사업을 전후로 매출이 약 242% 증가했다.

한국알프스㈜는 무인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배달로봇을 개발하는 실리콘밸리의 카트켄(Cartken Robotic Company)으로부터 관련기술을 이전받아 지역 내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향후 미래먹거리가 될 자율주행 배송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기 기업들은 지난 2019년 실리콘밸리의 경험을 발판 삼아 각자의 경쟁력을 키워가면서 사업 참여기업의 총매출 및 고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 동력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 드론 등의 영역에서 각자의 경쟁력을 갖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 기업들이 참여한 이번 설명회는 광주에겐 또 하나의 기회가 됐다"며 "오늘 실리콘밸리와 광주의 만남은 운명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지난달 31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실리콘밸리 온라인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선민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생훈 기자

서비스 로봇 시장 선점 '박차'

시, 산업부 '로봇개발·보급사업' 공모 선정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서비스로봇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한 '수요기반 맞춤형 서비스로봇 개발·보급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비스로봇 분야별 수요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고, 안정성과 효과성 등을 검증하는 문제해결형 보급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광주시와 지역기업인 ㈜드림씨엔지는 '자율주행형 실외 청소로봇'으로 공모에 참여해 서비스로봇 시장 선점에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

시는 자율주행 실외 청소로봇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연계 및 실증을 통한 제품을 개발해 지역기업의 국내외 시장 조기 진출과 지역 로봇산업 생태계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차산업에서 서비스로봇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공지능과의 접목이 필수적이므로, 광주시가 추진중인 기업 중심의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사업(AI데이터센터 등)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면 기업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로봇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헬스케어로봇 실증센터 구축, 고령노약자친화형 라이프케어로봇 실증기반 조성 등 서비스로봇 분야의 인프라 조성과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실증 및 기술개발, 로봇융합비즈니스 지원 등 기업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헬스케어로봇 실증센터는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으로 지역 내 시험·인증 선도 기관으로 장비활용 지원 및 제품 고급화, 마케팅 등 전주기적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로봇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해 병원, 요양원 등 헬스케어로봇 수요기관과 연계해 기업유치 및 지역 로봇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드림씨엔지 송창금 대표이사는 "현재 로봇시장은 제품 개발보다 규제 개선과 로봇 실증에 더 어려움이 있고, 기업 단독으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광주시와 컨소시엄을 통해 공모에 선정된 만큼 빠른 사업화로 지역산업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도, 외국인 백신 접종 적극 지원

미등록자 불이익 없도록 조치

전남도가 외국인사업장, 생활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백신 접종 지원에 적극 나섰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전남지역 외국인 확진자는 7월 이후 100명이 신규 발생해 총 155명으로 급증한 반면, 외국인 백신 접종률은 35% 수준으로 낮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외국인의 백신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접종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얀센백신을 적극 활용해 외국인이 단기간에 접종을 마치도록 지원하며, 시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등록을 위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하고, 콜센터를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한 대리인 예약도 가능하다.

미등록 외국인의 예방접종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예방접종 관련 정보는 법무부 통보사항이 아니며, 단속 및 강제퇴거 사례도 없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로부터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국인 구분 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모든 전남 거주자가 개인 방역수칙 준수, 증상 의심 시 무료 검사, 백신 접종 적극 참여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길용현 기자

전남행복지역화폐 1조2,650억 확대 발행

도, 국비 150억 추가 확보…도민·소상공인 혜택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가정경제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혜택을 주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전남행복지역화폐'를 1조 2,650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전남도는 당초 올해 국비 422억 원, 도비 65억 원의 예산을 시군에 지원해 일반발행 6,500억 원, 정책발행 3,500억 원 등 총 1조 원을 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비 15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2,650억 원의 지역화폐를 더 발행키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지역화폐를 신속 발행하고, 10% 할인판매를 지속했다. 그 결과 7월말 현재까지 올 들어 발행한 7,918억 원의 지역화폐 중 7천720억 원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전남행복지역화폐는 동네 상점, 전통시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크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전남에서 발생한 1조 1,531억 원 규모 상품권의 환전율이 95.6%에 달했으며, 상품권이 지역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 할인판매로 가정경제에 보탬을 주고 있어 판매율이 매우 높아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지역화폐 가맹점을 음식점 위주에서 이미용업, 학원, 약국, 병원, 서점 등으로 다양화하고 가맹점도 6만 3,000 개소까지 확대해 주변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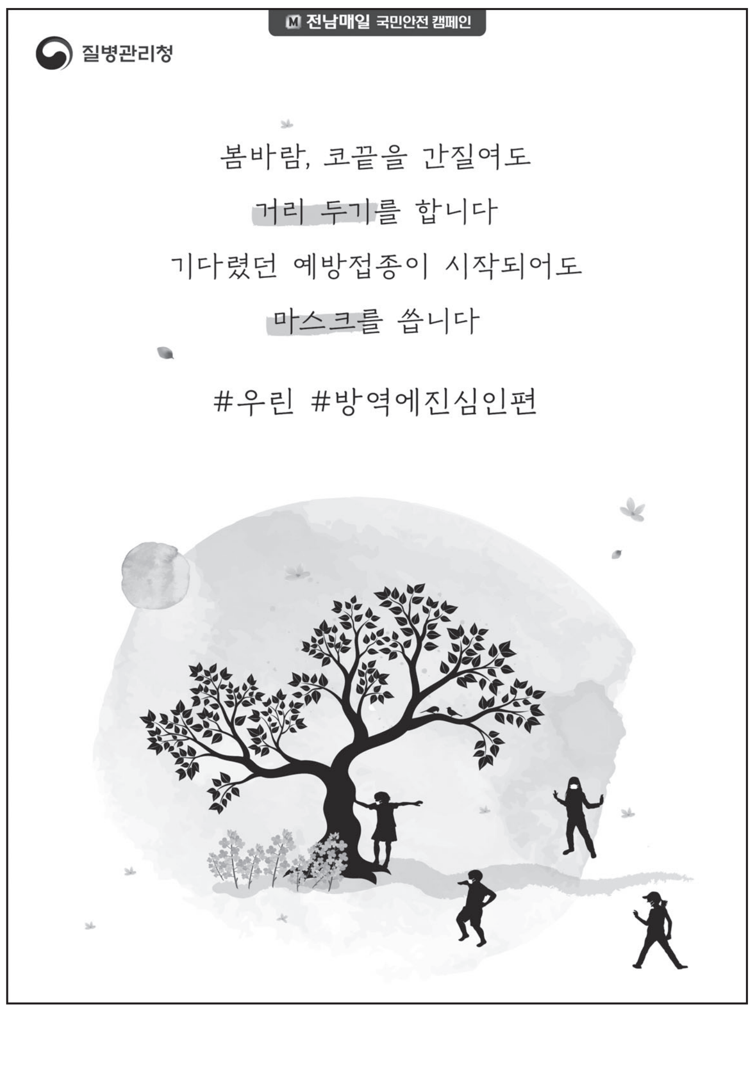
발행 유형도 소비 형태에 맞춰 사용하도록 지류형 상품권 외 카드·모바일형을 추가했다. 현재 22개 시군 중 21개 시군이 지류형과 카드·모바일형 상품권을 함께 발행 중이며, 9월부터 모든 시군으로 확대된다. /길용현 기자

한국-홍콩 수묵 교류전 진도서 개최

전남도와 주홍콩한국문화원, 홍콩현대수묵협회가 공동 주최·주관하는 '한국-홍콩 수묵교류전'이 '수묵의 새로운 시선- 그 정신적 가치와 다양성'이란 주제로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도 옥산미술관에서 열린다.

홍콩작가 15명과 국내작가 14명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동양의 전통 예술을 대표하는 '수묵'을 매개로 홍콩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수묵의 위상을 높이고 2021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개최 기간 58점을 선보인다.

수묵의 새로운 시선을 테마로 그 정신세계를 드러낸 작품들로, 전통수묵과 국내외 작가의 고유한 감각과 정신의 다양성을 작품으로 표현해 관람객에게 수묵에 대한 관심과 시야를 넓혀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전시를 통해 앞으로 수묵이 나아가야 할 현재와 미래에 생명력을 지닌 현대미술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신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한국-홍콩 수묵교류전을 통해 수묵화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